

# ‘강사법 영향’ 전임교수 강의 ↓ ‘코로나 여파’ 소규모 강의 ↑

195개교 전임교원 강의비율 66.3% 소규모 강좌, 전체의 42.4% 차지  
대규모 강좌, 전년 대비 1.2%p 감소

대학 전임교원의 강의 비율이 최근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8월 시간강사 고용안정을 위한 이른바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된데 따른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 여파로 20명 이하의 소규모 강좌는 일반대학과 교육대학, 전문대학 모두 전년 대비 늘고, 대규모 강좌는 줄었다.

◆강사 고용안정 위한 ‘강사법’ 이후 전임교원 강의 ↓, 강사 강의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최근 발표한 ‘2021년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2학기 일반대학과 교육대학 총 195개교의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66.3%다. 이는 지난해 2학기보다 0.4%p 감소한 수치다. 전임교원의 강의 담당 비율은 67.8%던 2019년부터 하락했다.



2019년 8월 시간강사 고용안정을 위한 이른바 ‘강사법’이 시행되면서, 대학 전임교원의 강의 비율이 최근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여파로 20명 이하의 소규모 강좌는 전년 대비 줄었다. /유토이미지

반면 강사의 강의 담당 비율은 올해 2학기 21.4%로 전년 2학기 대비 0.1%p 높아졌다. 133개 전문대학에서도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2019년 51.1% ▲2020년 50.4% ▲2021년 50.3%로 줄어 들고 있다. 다만 전문대에서는 강사의 강의 담당 비율도 전년 대비 0.7%포인트 감소했다.

전임교원의 강의 담당 비율이 줄고

있는 것은 강사법 영향으로 보인다. 2019년 8월 강사의 고용 안정을 위한 ‘강사법’이 시행되면서 올해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강사 담당학점 비율’과 ‘강사 보수수준’이 각각 1.5점, 1점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강사법에 따르면 대학은 강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고 1년 이상 임용해야 한다. 또, 3년간 재임용 절차를 보장

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초반에는 대학들이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도리어 시간강사를 줄여 논란이 일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강사법 시행 직후 강사 강의 비율이 하락했지만, 제도 시행 3년차를 맞으며 제도가 안정화되면서 강사의 수업 비중이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전체 강좌수 감소 불구 소규모 강의 수는 증가

전국 각 대학의 2021학년도 2학기 전체 강좌 수는 29만5873개로 지난해 2학기 30만2405개와 비교해 소폭 줄었다. 다만 수강인원 20명 이하 소규모 강좌는 12만5406개로 전체의 42.4%를 차지했다. 이는 40.4%던 전년 12만2239개보다 2%p 증가한 수치다.

반면, 대규모 강좌수는 줄었다. 51~100명 이하의 강좌 수는 2만7864개로 전체의 9.4%를 차지했으며, 전년 3만2200개(10.6%) 대비 1.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1명 이상의 대규모 강좌 수는 3270개로 전년 대비 339개 감소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학의 소규모 강좌비율이 43.3%로 국·공립대학(39.2%)보다 4.1%포인트 높았다. 소재지별로 보면, 비수도권 대학의 소규모 강좌는 42.9%로 41.5%인 수도권 대학보다 1.4%p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의 20명 이하 소규모 강좌는 4만3368개로 전체의 37.4%로 전년(4만1510개) 34.8% 대비 2.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고등직업교육연구소 관계자는 “13년 동안 등록금이 동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전문대학 교육의 강점인 계약학과, 주문식교육, 캡스톤디자인 등 현장 중심 교육이 증가했고, 소규모 강좌 비율이나 전임교원 담당 비율 등 수업 환경이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국·공립대학의 소규모 강좌 비율이 58.1%다. 36.9%인 사립대학보다 21.2%p 높은 셈이다. 소재지별로는 비수도권 대학의 소규모 강좌 비율이 38.1%로 수도권 대학(36.4%)보다 1.7%포인트 높았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박흥규·유혁 교수, 국가연구개발 ‘최우수’

〈고려대〉

우수성과 100선 중 12개만 최우수  
모두 최우수 연구, 국내 대 중 ‘유일’

고려대학교는 박흥규 이과대학 물리학과 교수와 유혁 정보대학 컴퓨터학과 교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발표한 ‘2021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최우수 연구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지원을 받아 수행한 범부처 7만 여 연구개발(R&D) 과제(2020년 기준) 가운데 각 부·처·청이 추천한 총 852건의 후보성과를 대상으로 최종 100건의 우수성과를 선정했다. 선정은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우수성과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질적 우수성을 평가한 후, 대국민 공개검증을 거쳤다.



박흥규 교수

유혁 교수

또한, 우수성과 100선 중에서도 정부 주요정책·전략 및 연구개발 집중 투자의 결과로, 기술적 우수성과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등이 돋보인 총 12개의 최우수성과를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100선에는 ▲기계·소재 18건 ▲생명·해양 26건 ▲에너지·환경 18건 ▲정보·전자 19건 ▲융합 10건 ▲순수기초·인프라 9건이 선정됐다. 고려대는 국내 종합사립대학으로는 유일하

게 2인의 교수가 선정됐고, 모두 최우수 성과로 분류되는 성과를 거뒀다.

박흥규 교수는 순수기초·인프라 최우수 성과로 선정됐다. 박흥규 교수는 ‘극미세나노선광소자 연구단’ 연구책임자로서 구조적 결함이 있더라도 빛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작은 공간 안에 빛을 가둘 수 있는 새로운 토폴로지 상태 연구를 통해 최고 수준의 나노 레이저와 비선형 나노소자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유혁 교수는 정보·전자 최우수 성과로 선정됐으며 2015년부터 2022년까지 과기정통부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 연구책임자로서 SLA보장이 가능한 차세대 클라우드 인프라 SW를 개발하고 세계적인 원천기술을 확보했다.

/이현진 기자

## 인천대 “한 달간 학생식당 아침밥 100원”

인천대 학생 대상

선정되며 최우수상을 받았다.

인천대학교가 학생식당에서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을 11월 한 달간 인천대 학생을 대상으로 100원에 제공한다.

1일 인천대에 따르면 ㈜NHN페이코는 위드코로나 대응 일환으로 인천대 ‘천원의 아침밥’ 메뉴를 페이코 결제시 1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기간은 오는 11월 30일 까지도다.

인천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주관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선정대학 28개 대학 중 한 곳으로, 지난해에는 우수학교

이 사업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에게 아침밥을 먹는 문화를 확산하고 쌀 소비를 촉진하고자 대학 및 정부가 지원해 진행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수업이 연장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약 1만4000명이 이용했으며, 지난해 한달간 이용자는 약 4000명이다. 올해 사업은 11월 30일 까지 지속된다.

한편, 인천대 생협은 인천대 앱센터 동아리 학생들이 개발한 ‘식당 예약관리시스템’을 개발해 활용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안전한 식당 환경을 제공하고, 정부의 위드 코로나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이현진 기자

## 중앙대, 메타버스서 ‘멘토데이’ 개최

졸업 선배 초청 멘토데이

중앙대학교가 대학가에서 새로운 소통창구로 급부상한 메타버스를 활용해 졸업한 선배와 재학생 후배를 잇는 ‘멘토 데이’ 행사를 개최한다.

중앙대는 다빈치인재개발센터 주관으로 메타버스 공간 내에 가상 캠퍼스를 구축해 진행되는 ‘졸업 선배 초청 멘토 DAY’를 4일부터 5일까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코로나19로 대면접촉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선배가 후배에게 대외활동·창업·성적관리 등 분야별 멘토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바이오·제약 R&D, 생산·품

질관리 분야 전문가들을 초빙해 채용 트렌드 및 직무이해 특강도 진행한다.

행사는 메타버스 캠퍼스에 구축한 행사장과 강의동을 활용해 진행된다. 이번 멘토 대상은 생명공학대학 학생들이다.

중앙대 관계자는 “행사 참여자가 소속감과 몰입감을 높일 수 있도록 메타버스 가상 캠퍼스를 설계했다”며 “중앙대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영신관 건물은 물론 유니크한 디자인의 중앙도서관과 청룡연못 등 학내 상징물을 디자인 요소로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멘토링뿐만 아니라 취업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잡카페도 메타버스 캠퍼스를 활용해 상시 운영한다.

/이현진 기자

사이버한국외국어대

클로쿠임·입학설명회 성료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은 지난 달 23일에 ‘학습자의 흥미와 몰입도를 높이는 영어수업 설계: 몰입&관심매력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제39차 클로쿠임과 2022학년도 1학기 TESOL대학원 입학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대학원 클로쿠임은 EBS 잉글리시 영어강의와 유튜브 채널 ‘영어응급실지원센터’로 잘 알려진 김지원 영어 강사를 초청해 유초등생부터 성인까지의 영어수업 설계법에 있어 연령대별 흥미와 몰입도를 높이는 적합한 학습방법과 도구에 대한 특강으로 진행됐다.

/이현진 기자



지난 29일 인하대 로스쿨관에서 열린 ‘2021 인하대 로스쿨 발전위원회: ILS 어울림 HALL 준공식 및 합동 약정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하대

##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발전위원회 개최

ILS 어울림홀 준공식·합동 약정식

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의 발전을 위해 어우러진 기금이 양방향 수업을 모두 아우르는 강의실로 탄생했다.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지난 달 29일 인하대 로스쿨관에서 ‘2021 인하대 로스쿨 발전위원회: ILS 어울림 HALL 준공식 및 합동 약정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인하대 로스쿨발전위원회는 다소 늦춰졌던 지하 강당을 그간 모인 발전기금 등을 사용해 개조해 ‘ILS 어울림홀’을 준공했다.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 교육환경에 발맞춰 온·오프라인 동시수업이 가능한 스튜디오식 스마트 강의실

또한 인하대 로스쿨발전기금을 새롭게 약정한 졸업생과 그동안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 인사들을 초청하여 합동 약정식 및 ‘월 오브 아너(Wall of Honor)’ 제막식을 진행했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은 2009년 3월 개원 이래 10번의 변호사 시험을 거쳐 합격자 414명을 배출했고, 판사와 검사로 20여 명이 임용됐다.

/이현진 기자